

대불산단 청년 친화형 조성 '잔걸음'

국비 538억 확보...도로 환경·안전 개선 등 추진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사업 다각화 기대

전남도는 '대불산단 도로환경개선 사업'과 '청년 친화형 산단 조성사업'에 국비 543억원을 확보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불산단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5억5,000만원을 들여 추진된다. 산단 주요 도로인 나불로의 화단형 중앙분리대(3km)를 제거하는 사업이다. 30~35m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산단 기업들은 그동안 도로 위 중앙분리대 때문에 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영암군·경찰서·기업체 등과 함께 '대불산단 환경개선 합동 간담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지난 달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영암군은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불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조성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도는 문화·편의시설 등 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혁신 인프라 확충 등 청

년취업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기숙사 임차료,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 지원 등 7개 공모사업 등에 국비 538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 지원사업은 전남 중소 조선사들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알루미늄 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루미늄 선박은 강화플라스틱(FRP)선박에 비해 건조비용은 다소 높으나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하다. 화기에도 강해 안전하다. 폐선 시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 때문에 알루미늄 선박 시장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

나, 전남의 대부분 알루미늄 선박 건조사는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남도와 영암군, (재)중소조선연구원은 국비 63억원을 포함해 총 115억원을 들여 영암 대불산단에 장비동 1개를 건립하고 2022년까지 15종의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송귀 전남도 혁신경제과장은 "대불산단의 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기업의 사업 다각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기업의 경영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단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정기 브리핑

"외국농산물·태풍피해 등 농가 큰 위협"

황주홍, '농민수당 입법화' 정책토론회 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위원장은(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민수당 입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농민수당 왜 필요한가'(박형대 전남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와 '농민수당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등 두 가지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회는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중 민중당 전북농민위원장,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



과장 등이 참여했다.

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농산물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농정현실을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또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수확기를 맞은 농촌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농민수당 역시 농민의 기본 소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 한정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멍'

서삼석 '수입보장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률 저조'

최근 잇따른 태풍과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책보험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정책보험 운영현황'에 따르면 총 6개 보험상품 중 가입률이 절반을 넘는 것은 가축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단 두개 상품이었다.

지난해 기준 보험가입률은 ▲가축재해보험 91.7% ▲농업인 안전보험 63.3% ▲농작물 재해보험 32.9% ▲가축질병치료보험 9.2% ▲농기계 종합보험 8.0%



▲수입보장보험 7.3% 순이었다.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수입보장보험의 경우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으로 가입경쟁률이 매우 높아 로또보험이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지만, 한정된 정부 지원으로 가입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보장보험 가입 품목이 콩·포도·양파·마늘·고구마·가을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한정된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서울=강병운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 SOSV 방문 이윤섭 광주시장이 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SOSV 벤처캐피탈을 방문해 SOSV 연구소 HAX의 이단하이(ethan haigh) 프로그램 기술자 겸 투자업무담당자와 광주지역 유망기업 투자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진 뒤 투자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들을 소개받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세계수영대회 유니폼 논란 독점계약 때문"

이상헌 의원 "대한체육회·수영연맹 내부 감사로 밝혀야"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개최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국제경기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 논란은 사실상 대한수영연맹 주관의 용품후원사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9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용품후원사 선정 건은 9월에 마케팅 대행사를 선정, 2월 두개 기업과의 공동후원사 계약형태로 체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두 달 뒤 이사회에서 갑자기 선정을 무효화하면서 대회 개최까지 1개월 앞두고 5월말 용품후원사 입찰공고를 진

행했다.

심지어 뒤늦게 입찰공고로 낙찰된 기업은 대한수영연맹과 25년 넘게 독점계약을 해온 아레나는 일본기업이었으며, 이번 공고에서도 단독용찰로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과정 속에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경기를 며칠 앞둔 7월 초에야 후원사를 뒤늦게 조금씩 결정하면서 연맹은 규칙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선수들에게 첫 유니폼을 전달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공동후원사 선정 무효선 사유'에 대해 요청했으나 연맹으로부터 '국제경기 인증 유니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해당 업체에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경기 인증제품은 수영복·수영모·수경과 같이 실제 경기에서 착용하는 용품에 한하며, 공동후원사들이 물품을 담당했던 '스피드'에서는 이미 인증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사회는 기타용품을 담당하기로 했던 국내기업 '베릴'의 인증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정확한 통보 없이 계약을 무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대한수영연맹 용품후원사 선정 건은 결국 정해진 일본 기업과의 독점계약으로 의혹만 발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경기력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이날의 경기만을 위해 피파를 둘러보려고 고생했을 선수들의 소중한 순간은 연맹 이사회의 번복된 판단으로 인해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지자체 사업·행사 이름에 우리말 사용하자"

전남대 국어문화원 한글가꿈이단 의원 모임 문화사업·행사에 외국어·외래어 혼용 잦아

광주시와 5개구가 실·국별 사업명칭에 외국어나 외래어를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국어문화원 한글가꿈이단 의원 모임은 제573주년 한글날을 맞아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사업명칭을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대 국어문화원 한글가꿈이단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장연주 광주시의원, 전영원 동구의원, 천신애 남구의원, 김영순 북구의원, 이귀순 광산구의원 등이다.

분석결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문화 관련사업 명칭에 외국어와 외래어를 혼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G-POP페

스티벌, 사운드파크페스티벌,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이다. 사업명 외에 공공기관 행사이름과 간행물에도 외국어 사용이 빈번했다. 특히 페스티벌, 워크숍, 아카데미, 포럼, 프리마켓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공공행사명 한글 우선 사업 용원칙 조례를 제정한 동구와 광산구는 한글 중심 사업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달빛결음, 소소한 걷기, 책정원, 직장인 해질녘 등 우리말을 사용했다. 광산구 자활사업단은 새물내음, 해맑은운동화, 바로바로택배, 물갈음, 깔끼미 등 사업 홍보와 목적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단어로 사업이

름을 지었다.

마을활동이 활발한 남구에서는 선비마을, 방갯골, 제석골 등 순우리말로 마을별칭을 만들거나 복원해 사용했다.

의원들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문화기획자들은 외국어 행사명을 우리말로 고치면 행사의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외국어 행사를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실력자이든 행정은 섬세함과 친절이 진짜 실력이다"며 "광주의 공공기관 행사명이 우리말로 한글 중심의 배려가 담긴 명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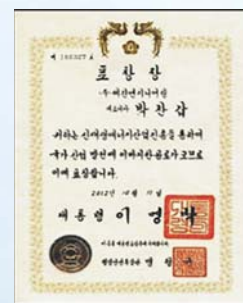
/황애란 기자

신뢰와 고객감동 서비스로 국내·외 엔지니어링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 태양광발전사업(RPS)인허가, 시공, 토탈 컨설팅
- 태양광 조달우수업체 및 MAS(다수공급자)등록업체
- 공동주택(APT)종합감리업, 설계업 1종
- ESS(에너지저장장치) ■ 지자체 융·복합지원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주요사업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조달우수업체(태양광발전시스템)
- 전기·소방·기계설비공사사업
- 전기 종합감리업 및 설계업 1종
- 정보통신 공사업
- 난방시공업체(제1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등록업체
- 공동주택(아파트)설계, 감리업
- 태양광 발전 설계·감리·시공업
- 정보통신 공사업
- 한전 무정전협력업체(배전간기)
- 에너지전문기업(ESCO)2종



2012년 신재생에너지 대통령상 수상



[주] 세진엔지니어링

SEJIN ENGINEERING.CO.,LTD
HTTP://SEJINENG.CO.KR

본사: 전남 영암군 덕진면 향월수동길 101-8
 공장: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50-1(유촌동)
 TEL: 062-384-6333
 FAX: 062-384-6334
 H·P: 010-3735-7113
 대표전화: 1588-4556

대표이사 박찬갑

